



5면

새들마을사업으로 왕의궁원 프로젝트 시동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4년 8월 5일 월요일 (음 7월 2일)

제3560호

대표전화 (063)288-9700

민주 전대 전북 당대표 경선 결과

(온라인 투표)

이재명 84.79%

김두관 13.32%

총선거인 15만1162명 중 20.28% 투표 참여
최고위원 1위는 '전주 출신'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10차 경선 지역인 전북에서 이재명 후보가 85%에 가까운 득표율을 얻었다.
지난 3일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남부터 이틀 동안 치러진 전북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결과, 이재명 후보가 84.79%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경쟁 후보인 김두관 후보가 13.32% 김지수 후보는 1.89%의 득표율을 얻었다.
전북지역 권리당원 총선거인 수는 15만1,162명으로 이 중 3만6,622명(20.28%)이 온라인 투표에 참여했다.
후보 8명이 맞붙은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전주 출신인 한준호 후보가 득표율 21.27%로 선두에 올랐다. 이어 김민석 후보가 19.00%로 2위를 차지했고, 유일한 원외 인사인 정봉주 후보가 13.25%로 3위에 올랐다.
이어 전현희 후보 13.04%, 이연주 후보 10.79%, 김병주 후보 10.12%, 민형

배 후보 7.73%, 강선우 후보 4.80% 순으로 뒤를 이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익산시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차기 지도부 선출 합동 연설회를 열었다. 무더운 날씨에도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추산 장내 2,500명·장외 500명, 총 3,000여명이 참석했다.
전북 당원들은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들을 열렬히 응원했다.
이에,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들은 화답했다. 한목소리로 지역 연고를 강조하거나 호남 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하는 등 전북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국 순회 경선을 거쳐 향후 열릴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5명을 최종 선출한다. 본 경선 결과는 대의원 14%와 권리당원 56%, 국민 여론조사(민주당 지지자와 무당층 대상) 30%를 합산해 결정한다. /이만호 기자

두 팔 높이... 민주 전대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지난 3일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주·강선우·정봉주·민형배·김지수·김두관·이재명·김민석·이연주·한준호·전현희 후보. <관련기사 3면>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전북자치도, 지방정부 공공외교 나서

김관영 도지사 등 대표단,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위해 파리행
한지 유산 등재 관심 요청, 유산전·포럼 개최 등 협업 논의
재외동포·파리주재원 만나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참여 독려
OP모빌리티 찾아 투자 현황 청취... 상호 협력 방안 논의도



2024년 파리 올림픽 기간동안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등 지방정부의 공공외교활동에 나선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싱 취 유네스코 부사무총장(사진 오른쪽)과 면담을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 파리 올림픽 기간동안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등 지방정부의 공공외교활동을 펼쳤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김관영 도지사 등 외교단은 지난 31일부터 2박 4일 동안 올림픽이 개최되고 있는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김 지사 등 전북대표단은 프랑스 방문 직후 유네스코 본부를 찾아 싱 취(Xing Qi) 부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지난 4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한 '한지'의 보존 가치를 설명하고, 고인돌 유적·백제 역사 유적지구 등 유네스코 등재 유산이 많은 전북자치도와 유네스코가 유산전이나 포럼 개최 등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한지는 천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전통 종이로, 한국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일상생활에 깊이 뿌리내린 소중한 유산이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 한지의 보존과 계승에 힘쓰고 있으며, 이번 등재 신청을 통해 한지가 세계적인 인류 무형유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유산 등재에 대한 부사무총장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전북대표단은 이후 재외동포와 파리주재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북특별자치도는 글로벌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한인 비즈니스 리더들을 지원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계획을 설명하며, 오는 10월 전북에서 개최되는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전북 선수단 출전 경기를 참관하며 열띤 응원을 펼친 뒤 '한국의 날'

행사에 참석해 각국의 올림픽 참가 선수와 관람객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스포츠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자리를 동참했다.
전북자치도 외교단은 마지막 일정으로 전북 완주 테크노밸리 2산단에 있는 OP모빌리티(구 플라스틱오톨)를 방문해 회사 및 투자 현황을 청취하고 향후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서 논의했다.
OP모빌리티는 1946년 파리에 본사가 설립된 후 전세계적으로 137개의 공장을 구축한 대형 플라스틱 부품업체 세계 1위 기업으로 최근 몇 년간 수소 부분 투자를 확대하며, 지난 '23년1월 완주 테크노밸리 2 산단에 고압 수소연료탱크 생산공장을 설립하고 (구 플라스틱오톨)를 방문해 회사 및 투자 현황을 청취하고 향후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도민 개인정보 보호에 '온 힘'

전북자치도, MS發 IT대란 등 따라 대비 태세 만전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이 안심하고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에 온 힘을 쏟는다.
최근 일련의 MS발(發) IT대란 사태와 사이버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도민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른 것으로, 경각심을 갖고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울이겠다는 조치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24시간 중단없는 사이버 보안관제를 운용해 승인되지 않은 접근 시도를 사전 발견하고 즉각적인 조치로 사이버공격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외부 공격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스

템 방화벽, 침입 탐지 시스템, 백신 프로그램 등 보안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암호화 기술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접근권한을 최소화하여 부여하여 권한이 없는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하고,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접속기록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는 예방책도 병행하고 있다.
여기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추진하고 매월 타 기관 개인정보 유출사고 사례를 전파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2024 군산 문화유산야행

| 8.16(금) - 8.17(토) | 8.23(금) - 8.24(토) | 18:00 ~ 23:00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 원도심 일원

2024 군산문화유산야행

주최 군산시 후원 국가유산청 전북특별자치도